

## 『프로슬로기온』 3장 논증의 새로운 해석?\*

최 원 배

【요약문】 최근 김세화는 『프로슬로기온』 3장에 나오는 논증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그가 제시한 논증 III은 3장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다르며, 3장에 대한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인 논증 IV보다도 더 낫다. 여기서 나는 논증 III은 기존의 해석과 견주어 볼 때 새롭다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가 원하는 결론을 얻고자 한다면 도리어 논증 III보다 논증 IV를 택해야 함을 보인다.

【주요어】 신 존재 증명, 안셀무스, 귀류법, 김세화

1. 김세화(2005)<sup>1)</sup>에서 김세화는 『프로슬로기온』 3장에 나오는 논증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그가 제시한 논증 III은 3장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다르며, 3장에 대한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인 논증 IV보다도 더 낫다. 나는 여기서 논증 III은 기존의 해석에 견주어 볼 때 새롭다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가 원하는 결론을 얻고자 한다면 도리어 논증 III보다 논증 IV를 택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2. 김세화에 따르면, 『프로슬로기온』에 제시된 3장 논증은 2장 논증의 전체 가운데 하나인 다음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증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A: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김세화가 제시한 구체적 논증은 다음과 같다.

논증 III

- (i)\*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 (ii)\* 우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iii)\*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크다.
- (iv)\* 우리는 신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v)\* 그런데 이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vi)\* 그런데 이는 불합리하다.
- (vii)\* 따라서 (i)\*는 거짓이다.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
- (viii)\* 따라서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

1) 김세화, "A New Interpretation of the Argument in *Proslogium* 3", 『철학적 분석』 11(2005), pp. 1-10.

그런데 3장 논증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는 방안도 있다.

논증 IV

- (i)<sup>\*\*</sup>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없다고 가정하자.
- (ii)<sup>\*\*</sup> 우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iii)<sup>\*\*</sup>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는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보다 더 크다.
- (iv)<sup>\*\*</sup> 우리는 신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v)<sup>\*\*</sup> 그런데 이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vi)<sup>\*\*</sup> 그런데 이는 불합리하다.
- (vii)<sup>\*\*</sup> 따라서 (i)<sup>\*\*</sup>는 거짓이다.
- (viii)<sup>\*\*</sup> 따라서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김세화는 논증 IV가 『프로슬로기온』에 나오는 안셀무스의 다른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III을 선호한다.<sup>2)</sup>

3. 먼저 논증 III과 IV를 비교해 보자. 이 두 논증은 모두 귀류법 논증이고, 결론이 같다.

A: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God can be conceived to exist in reality.)

이 두 논증의 차이는 귀류법을 위한 가정인 첫 번째 전제에 있다.<sup>3)</sup> 논증 III의 첫 번째 전제는 다음이다.

B: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  
(God can be conceived not to exist in reality.)

---

2) 김세화(2005), pp. 6-7.

3) 물론 (iii)<sup>\*</sup>과 (iii)<sup>\*\*</sup>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이 차이는 첫 번째 전제의 차이에 따른 조정의 결과일 뿐이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논증 IV의 첫 번째 전제는 다음이다.

C: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없다.  
 (God cannot be conceived to exist in reality.)

즉 부정 표현의 위치에 차이가 난다. 이 외에 모순을 구성하는데 이용되는 다른 전제들은 동일하고, 논증의 진행 방식 또한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의문이 든다. 귀류법을 사용하는 동일한 형태의 논증에서 서로 다른 전제를 부정하여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 귀류법의 일반 형식은 다음과 같다.

K	귀류법을 위한 가정
.....	
└	모순의 도출
K의 부정	결론

물론 귀류법 논증에서 모순을 도출하는데 이용된 전제가 여러 개일 경우, 우리는 그 전제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우리 마음대로 부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례는 분명히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한 방안으로, B와 C는 사실상 같은 명제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문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물론 우리는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B와 C가 동일한 명제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며, 이것이 김세화가 염두에 두는 견해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B와 C는 실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하지만, 이들 명제의 경우 특이하게도 그것을 부정하면 동일한 명제 A를 얻는다고 할 수 있을까? 바꾸어 말해, 귀류법에 의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

이 A라고 할 때, 우리는 B를 가정해도 되고 C를 가정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이런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과연 이들이 동일한 형태의 논증일까?

나는 이제 논증 III과 논증 IV의 결론은 동일한 A이지만, 이를 얻는 과정은 다르다는 점을 밝히기로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논증 IV의 결론 A는 첫 번째 전제, 즉 C에 귀류법을 적용해 얻은 직접적 귀결이지만, 논증 III의 결론 A는 첫 번째 전제, 즉 B에 귀류법을 적용해 얻은 직접적 귀결이 아니다. 도리어 논증 III에서 결론 A는 귀류법을 통해 얻은 다른 결론으로부터 논리적 원리와 다른 원리를 함께 적용하여 추가로 얻은 것임이 드러난다. 결국 B와 C라는 서로 다른 전제로부터 동일한 형태의 귀류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결론 A를 얻은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논증 III의 정식화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듯이, 이 논증에서 귀류법을 통해 우리가 일차적으로 얻는 결론은 B의 부정인 다음이다.<sup>4)</sup>

NB: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

(God cannot not be conceived not to exist in reality.)

처음 제시된 정식화에서는 이 단계 (vii)\*로부터 바로 (viii)\*, 즉 A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와 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생긴다. 무엇이 이런 이행을 정당화할까? NB는 단순히 A라는 명제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가? 혹은 이들은 서로 동치인 명제들인가?

김세화는 이 문제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sup>5)</sup> 그는 (vii)\*로부터 (viii)\*로의 이행은 몇 단계의 추론을 통해 정당화된다고 설명

4) 김세화(2005), p. 5.

5) 김세화(2005), p. 7 이후.

한다.6) 이 과정에서 그는 다음 원리를 받아들인다.

- (C)\*\* P라고 생각할 수 있다  $\leftrightarrow$  P가 가능하다.  
 (It is conceivable that P  $\leftrightarrow$  it is possible that P.)

이 원리와 양상 논리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NB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A를 얻게 된다.

- (vii)\*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  
 (vii)\*-1 신이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therefore$  (C)\*\*  
 (vii)\*-2 신이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therefore$  양상 논리의 원리,  $\sim \Diamond \sim P \vdash \Box P$   
 (vii)\*-3 신이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therefore$  양상 논리의 원리,  $\Box P \vdash \Diamond P$   
 (viii)\* 신은 실재에 존재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therefore$  (C)\*\*

이제 논증 III에서 결론 A는 귀류법의 직접적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으로부터 파생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논증 III과 논증 IV는 외관상 유사하게 보일 뿐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4.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이제 이렇게 보완된 논증 III과 『프로슬로기온』 3장에 대한 기존의 해석인 논증 II를 비교해 보자. 논증 II는 다음과 같다.

논증 II

- (i)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 (ii) 우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iii)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는 존재는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크다.
- (iv) 우리는 신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 (v) 그런데 이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그것보

---

6) 김세화(2005), p. 9 참조.

- 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vi) 그런데 이는 불합리하다.
  - (vii) 따라서 (i)은 거짓이다. 신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없다.
  - (viii) 따라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ix) 따라서 필연적으로, 신은 존재한다.
  - (x)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논증 II의 (i)부터 (ix)까지가 앞에서 추가로 보충한 논증 III의 (i)\*부터 (vii)\*-2까지와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존 해석인 논증 II와 이른바 ‘새로운’ 해석인 논증 III의 차이는 그 이후 단계에 있는 셈이다.

물론 논증 II의 최종 결론과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은 다르다. 논증 II의 최종 결론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 반면,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은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논증 III은 II와 다른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논증의 최종 결론은 모두 귀류법을 통해 얻은 직접적 결론의 서로 다른 양상 논리적 귀결에 불과하다.

논증 II $\square P$	논증 III $\square P$
$\therefore P$	$\therefore \diamond P$

신의 존재가 필연적임을 주장하는 명제인  $\square P$ 는 바로 우리가 B에 귀류법을 적용해 얻은 결론이다. 가장 강한 주장인 이 결론으로부터, 양상 논리의 추론에 의해 우리는 논증 II에서는 신의 존재가 우연적으로 참임을 주장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반면, 논증 III에서는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가능함을 주장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양상 논리에서  $P$ 가  $\diamond P$ 를 함축하므로,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은 논증 II의 최종 결론보다 약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논증 II

에서도 얻을 수 있는 주장이다. 즉 귀류법에 의해 일단 신의 존재가 필연적임을 주장하는 결론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양상 논리의 추론에 의해 논증 II의 최종 결론이나 논증 III의 최종 결론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논증 III이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빛을 바래다고 생각된다.

5. 이제 논증 IV를 살펴보기로 하자. 논증 IV는 올바른 논증일까? 논증 IV에서 귀류법을 위한 전제 C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될 수 있을 것 같다.<sup>7)</sup>

C:  $\sim\Diamond P$

만약 모순을 도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귀류법에 의해 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인 C의 부정, NC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이다.

NC:  $\sim\sim\Diamond P$

이제 이중부정을 소거하면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을 얻을 수 있다.

A:  $\Diamond P$ <sup>8)</sup>

7) 논의를 위해 우리는 앞에 나온 원리 (C)<sup>\*\*</sup>를 받아들인다.

8) 이에 반해 논증 III의 골격을 같은 방식으로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Diamond\sim P$	귀류법을 위한 가정(B)
.....	
$\perp$	모순의 도출
$\sim\Diamond\sim P$	가정의 부정(NB)
$\Box P$	양상 논리의 원리
$\Diamond P$	양상 논리의 원리



따라서 우리의 기호화가 옳다면, 논증 IV의 전개 방식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6. 마지막으로 논증 III에서 귀류법을 위한 가정인 B와 논증 IV에서 귀류법을 위한 가정인 C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방금 보았듯이, 논증 IV의 가정을 ‘ $\sim\Diamond P$ ’로 기호화할 수 있다면, 논증 III의 가정인 B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할 수 있을 것이다.

B:  $\Diamond\sim P$

이제 우리는 양상 논리의 원리에 따를 때 C가 B를 함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즉 C가 B보다 더 강한 주장이다. 귀류법을 통해 얻는 결론은 이들 가정이 거짓이라는 주장이므로, 동일한 방식의 귀류법이라면 C가 거짓임을 보이는 논증 IV의 결론이 B가 거짓임을 보이는 논증 III의 결론보다 약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는 실제로 그렇다. 즉 논증 IV의 최종 결론  $\Diamond P$ 는 논증 III의 귀류법 결론인  $\Box P$ 보다 약하다.

7. 결국 김세화가 원하는 대로 『프로슬로기온』 3장의 논증을 2장 논증의 한 전제인 A를 정당화하는 논증으로 보려면, 우리는 논증 III이 아니라 논증 IV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세화의 지적대로 이것은 『프로슬로기온』에 나오는 안셀무스의 언급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고 생각한다.<sup>10)</sup>

KAIST

Email: wonbaechoi@hanmail.net

9)  $\sim\Diamond P \vdash \Box\sim P$ 이고,  $\Box\sim P \vdash \Diamond\sim P$ .

10) 이 주제를 같이 논의해준 2006학년도 1학기 한림대학교 철학과 ‘형이상학과 존재론’ 수강생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 단계에서 원고를 검토해준 김세화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A New Interpretation of the Argument in *Proslogium* 3?

Wonbae Choi

---

In a recent paper Seahwa Kim suggested a supposedly new interpretation of the argument given by Anselm in *Proslogium* 3. According to Kim, her interpretation, argument III is not on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interpretation given by others, but also is it better than an alternative argument I V. I argue that these two claims are flawed.

**【Key Words】** ontological argument, Anselm, reductio ad absurdum, Seahwa Kim